

# 경제와 노후생활

## ■ 경제

- 동 향 :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
- 이 슈 : (경제)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자

## ■ 노후생활

- 테 마 : 가족내 노인고령자의 역할변화
- 세 심 록 : 불편함이 정신을 깨어 있게 만든다
- 북 리 뷰 : 부품사회 (피터 카펠리 著)

□ 동향

○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

-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 **생산**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4.7%)이 부진한 반면 자동차(6.7%), 영상음향통신(9.5%) 등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1.6%), 숙박·음식점업(4.8%) 등이 늘어 전월대비 0.9% 증가
- **소비**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5.8%)는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9.8%),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2.4%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4.5% 감소.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9.7% 증가

○ 2월 소비자물가 1.0% 상승의 저물가 기조 지속

-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여 2012년 11월(1.6%)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물가 목표(2.5~3.5%) 하한을 16개월 연속 하회
- **근원물가** :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하여 2013년 11월에 2%를 넘어선 이후 최근 다시 하락하는 모습
- **생활물가지수** :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여 작년 12월(0.5%)과 올해 1월(0.6%)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2/24	3/10
실물지표	GDP성장률(%)	2.0	1.5	2.3	3.3	3.9	-	-	-	-		
	제조업생산(%)	0.8	-1.8	-0.8	0.0	1.7	-0.7	3.0	-4.2	-		
	소비자물가(%)	2.2	1.6	1.2	1.4	1.1	1.2	1.1	1.1	1.2	-	
	실업률(%)	3.2	3.6	3.1	3.0	2.8	2.7	3.0	3.5	-		
	경상수지(억달러)	480.8	99.7	198.0	189.8	219.7	60.3	64.1	36.1	-		
금융지표	국고채3년물(%)	3.13	2.68	2.67	3.01	2.90	2.94	2.94	2.89	2.85	2.85	2.88
	원/달러(원)	1,126.8	1,084.1	1,122.2	1,112.2	1,062.1	1,062.8	1,056.7	1,064.8	1,071.3	1,067.3	1,070.6
	코스피지수(P)	1,930.4	1,985.4	1,932.6	1,917.7	2,009.3	2,009.9	1,988.3	1,948.2	1,937.3	1,938.3	1,968.3

주 : GDP성장률,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2/24~3/7 평균값임.

## □ 이슈 : (경제)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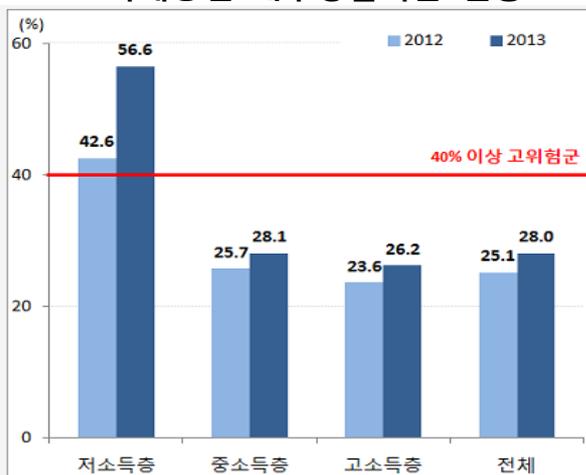
### ○ 가계부채 1,000조와 소득계층별 부담

-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3/4분기 약 992조원을 기록하였고, 2013년 연말 1,0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음
  -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부담은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음
  - 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매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이는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

###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의 금융대출은 2012~2013년 동안 크게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
  -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 크게 확대됨
- 고소득층은 주로 원금을 상환하나, 저소득층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저소득층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지급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중·고소득층은 많은 원금상환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하고 있고 부채부담이 줄어들 전망

<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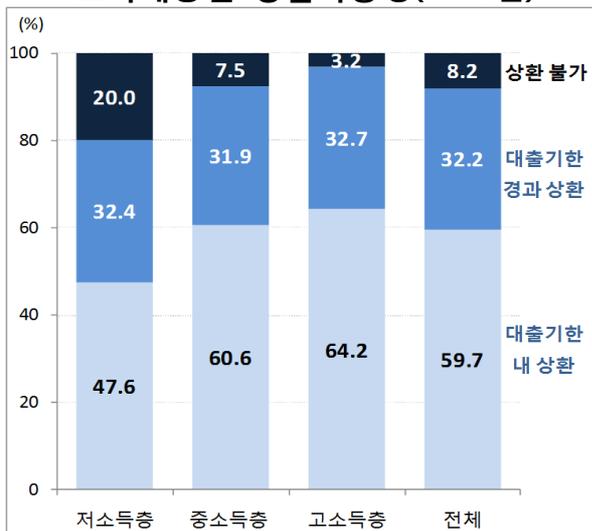
<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액 >

		2012	2013	증감률
저소득층	원리금상환액	398	500	25.6
	이자지급	129	186	44.2
	원금상환	268	314	17.2
중소득층	원리금상환액	771	891	15.6
	이자지급	238	244	2.5
	원금상환	533	646	21.2
고소득층	원리금상환액	1,738	2,002	15.2
	이자지급	607	584	-3.8
	원금상환	1,131	1,418	25.4

<sup>1</sup>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14-7호(통권 578호), (2014. 02. 14.) 에서 발췌 요약.

- **저소득층은 근로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 증가도 미비**
  - 중소득층 이상은 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하나,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주로 불안정한 형태로 근로하고 있기 때문임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구소득 증가폭이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낮고, 특히 이전소득은 오히려 감소
  
- **고소득층은 자금유통차질로, 저소득층은 소득감소로 인해 연체가구가 증가**
  - 전 계층에서 원리금 연체가구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 원인에는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남
  - 고소득층은 주로 자금유통차질로 인한 원리금 연체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주요한 원인임
  
-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부채상환이 곤란한 상황**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매우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있음
  -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황이 불가능하여 연체율이 증가할 전망
  
-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을,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래 부채가 증가할 전망**
  - 미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층은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고소득층은 부동산구입(35.2%)이 가장 높음

< 소득계층별 상환가능성(2013년) >



< 소득계층별 미래부채 증가 요인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부동산 구입	5.1	15.2	35.2	16.9
사업자금	3.7	9.2	13.5	8.9
생활비	52.1	37.3	15.6	36.3
교육비	26.1	21.3	15.4	21.2
부채상환	9.0	11.0	7.1	9.9
기타	4.0	5.9	13.3	6.9

김광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 □ 이슈 : (산업)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자<sup>2</sup>

### - 마·일·독 제조업 R&D 정책 동향

#### ○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R&D 강화 배경

- 중국 등 선진 개도국의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들은 제조 리더십 약화에 대한 위기감 고조
  - 중국, 한국 등 선진 개도국의 기술력이 강화되고 있음
  -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중 기술인프라가 중국은 2001년 47위에서 2013년 20위로 상승, 과학인프라가 동기간 26위에서 8위로 상승
  - 이러한 결과로 1997년 이후 첨단제품의 전세계 수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속 감소, 미국은 감소후 정체, 독일은 현상 유지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97년 8%에서 '10년 24%로 급증하였으며, 한국은 동기간 4%에서 5%로 증가
- 무선인터넷 등 IT네트워크화 진전과 3D프린터 등 3D 기술을 활용한 신공정 기술 등장
  - IT 기기 및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적 제약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설비에 적용해 공장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됨
  - 3차원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저비용, 단기간 제조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조까지 가능해지고 있음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한 고부가 융합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제품 기술 확보가 현안으로 대두
  - 주력 핵심 제품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 융합 제품 개발에 나서면서 제조 기능을 인소싱으로 전환하고, 부족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M&A 등으로 확보하고 있음

#### ○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 기술 선진화 정책

- 미국, 독일, 일본의 제주부문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정책비전과 실행 전략의 공통점
  - R&D 대상을 제품 핵심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시스템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
  - 기존 제품과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신재료, 에너지 절감 기술, IT기술(소프트웨어, 무선기술) 등을 활용

<sup>2</sup>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자” 14-7호(통권 558호), (2014. 02. 17) 에서 발췌 요약.

- 제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할 제도적 인프라를 신설
- 미국은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 독일은 “High-Tech Strategy 2020” 및 “Industrie 4.0”(독일), 일본은 “일본산업재흥플랜”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별부처별로 진행되었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주로 범부처(multi-agency)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를 지원할 법, 제도, 조직 등 촉진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음

**<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 선진화 R&D 정책 >**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추진 배경	경제력 강화, 국가안보,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고령화 등	산업기반 강화, 과학기술 혁신 추진
기본 정책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2012.2), “제조업 재생 계획”(2012.7)	“High-Tech Strategy 2020”(2010년) 및 실행계획(2012)	“일본산업재흥플랜”(2013.6)
R&D 프로그램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ie 4.0”(영문 Industry 4.0)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SIP)”
촉진 인프라	제조혁신기관(IMI), 제조혁신네트워크(NNMI)	Industrie 4.0 Platform	종합과학기술회의
주요 추진 과제	-에너지 절감용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선진화 -제조기술가속화센터 건립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제조부문 로봇 개발 -계능 분야의 신제품 및 공정 개발 지원	유무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제조시스템과 다양한 적용 도구 개발 프로젝트	*SIP 10대 후보 과제 -에너지: 연소기술 및 구조재료 등 5개 과제 -차세대 인프라: 자동운전시스템 등 3개 과제 -지역자원 혁신적설계생산기술 등 2개 과제
R&D 예산 (정부)	-2014년 29억 달러 *2015년 예산 편성시 첨단제조부문 최우선 고려	-2012년~2015년간 2억 유로	-2014년도 SIP 510억엔 (계상)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mailto:johnlee@hri.co.kr))

## □ 테마 : 가족 내 노인고령자의 역할 변화

### ○ 요약

고령사회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며 지원체계인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2012년 가족구조는 핵가족(61%)과 1인가구(25.3%)의 증가와 3, 4세대 가구(6%)의 감소가 특징이며, 2035년에는 핵가족 53%, 1인가구가 34.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들은 더 이상 노후의 든든한 보호막이 아니며,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생의 과정에서 1인가구로 살아가야할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이혼과 가정폭력 등의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은 노부모들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노부모들의 역할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산업화로 인해 가속화된 핵가족화는 부모와 자녀세대의 동거형태를 변화시켰으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효의식과 부모부양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부모역할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은 여전히 강하고, 그 결과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이전은 생애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만, 자녀들은 이를 당연한 부모의 역할로 여기면서 노인들의 노후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가족관계에서의 노부모 역할 변화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그 원인이지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부모들이 한 원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이미 다가온 고령화를 대비하여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중요한 정서적, 도구적, 여가적 지원망으로서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대간의 친밀한 교류, 즉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 및 손자녀와의 접촉이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조부모 관계는 손자녀-조부모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가족의 구조적 변화

-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1인가구의 증가와 3, 4대 가구의 감소, 가구원수의 감소 등이 특징이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
- 2012년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핵가족(9.4%는 한부모가족) 61%, 3, 4세대가구 약 6%, 1인가구가 25.3%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냄
- 이러한 분포는 2035년에는 핵가족이 53%(한부모가족 10%), 확대가족은 3.8%로 감소하며, 그 감소분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가구유형별 구성 추이(2010~2035)>

(단위 : 천가구, %)

		2010(a)	2012	2015	2025	2035(b)	연평균변화		2010~2035 (b/a)	
							가구	구성비		
가구 수	계	17,359	17,951	18,705	20,937	22,261	196	100.0	1.28	
	친족 가구	계	13,002	13,198	13,420	14,136	14,408	56	28.7	1.11
		부부	2,666	2,874	3,179	4,264	5,053	95	48.7	1.90
		부부+자녀	6,427	6,294	6,059	5,264	4,509	-77	-39.1	0.70
		부+자녀	347	373	410	511	564	9	4.4	1.62
		모+자녀	1,248	1,304	1,374	1,528	1,601	14	7.2	1.28
		3세대	1,062	1,035	992	891	851	-8	-4.3	0.80
		4세대이상	13	12	10	7	4	0	-0.2	0.35
	기타	1,240	1,305	1,395	1,671	1,826	23	12.0	1.47	
	1인가구	4,153	4,539	5,061	6,561	7,628	139	70.9	1.84	
비친족가구	205	214	225	241	225	1	0.4	1.10		
구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친족 가구	계	74.9	73.5	71.7	67.5	64.7			
		부부	15.4	16.0	17.0	20.4	22.7			
		부부+자녀	37.0	35.1	32.4	25.1	20.3			
		부+자녀	2.0	2.1	2.2	2.4	2.5			
		모+자녀	7.2	7.3	7.3	7.3	7.2	-	-	-
		3세대	6.1	5.8	5.3	4.3	3.8			
		4세대이상	0.1	0.1	0.1	0.0	0.0			
	기타	7.1	7.3	7.5	8.0	8.2				
	1인가구	23.9	25.3	27.1	31.3	34.3				
비친족가구	1.2	1.2	1.2	1.1	1.0					

자료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보도자료]. 통계청 (pp. 10-11)

주 : 1) 부부+미혼형제자매(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1세대기타, 부부+양친(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한조부모)+미혼손자녀, 2세대기타

-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에 대응 필요

-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 이혼과 가정폭력, 자살의 증가 등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음
-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속도나 방향은 거스를 수가 없으므로, 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노인고령자의 역할 변화의 원인

-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동거형태의 변화

-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은 “한술밥을 먹는 식구”라는 개념이 강하며, 동거는 가족원들의 유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3세대 가구는 전체가구의 5.8%이며, 부모가 생존해있는 경우에도 33.7%만이 자녀들과 동거하며, 64.1%는 부모들만 따로 살고 있음. 부모와 비동거하는 경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높아 앞으로 핵가족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됨

< 부모 생존여부 및 동거자 (가구주) >

(단위: 명)

	계 (가구주)	부 생 존 <sup>1)</sup>	부모의 동거자						부모만 따로 살고 있음	기 타
			소계	자녀	장남 (만며느리)	장남 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2010년	100.0	60.5	100.0	35.3	17.5	12.3	5.5	62.8	1.9	
<b>2012년</b>	<b>100.0</b>	<b>58.3</b>	<b>100.0</b>	<b>33.7</b>	<b>16.0</b>	<b>11.2</b>	<b>6.5</b>	<b>64.1</b>	<b>2.2</b>	
<b>가구주 연령</b>										
13 ~ 29세	100.0	97.3	100.0	26.9	8.6	10.2	8.1	71.7	1.5	
30 ~ 39세	100.0	95.2	100.0	26.3	11.4	8.1	6.8	72.8	0.9	
40 ~ 49세	100.0	81.9	100.0	32.2	14.9	11.9	5.4	66.1	1.7	
50 ~ 59세	100.0	51.2	100.0	45.7	25.2	13.4	7.1	50.6	3.8	
60세 이상	100.0	10.5	100.0	56.0	31.0	18.5	6.5	35.8	8.1	

자료 : 통계청(2012). 사회조사.

주 :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임.

- 시대에 따른 효에 대한 인식 차이

- 공자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며, 예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효의 방식과 내용은 많은 변화를 보임
-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전화를 자주 거는 것 등 자신들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서적인 효만을 중시함
-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은 더 이상 효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지 않음
-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49.8%는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자식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모든 자녀들이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부양의 책임도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해야한다는 인식이 증가함

< 부모 생활비 주제공자 (가구주) >

(단위: %)

	계 <sup>1)</sup>	자녀	가족 내				부모 스스로 해결	기타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2008년 <sup>2)</sup>	100.0	52.9	14.6	10.5	1.9	25.9	46.6	0.5
2010년 <sup>2)</sup>	100.0	51.6	12.4	11.3	1.8	26.1	48.0	0.3
<b>2012년</b>	<b>100.0</b>	<b>50.7</b>	<b>11.2</b>	<b>9.7</b>	<b>2.3</b>	<b>27.6</b>	<b>48.9</b>	<b>0.4</b>
<b>가구주 연령</b>								
13 ~ 29세	100.0	18.5	3.5	3.2	1.7	10.1	81.3	0.2
30 ~ 39세	100.0	33.6	6.2	6.3	2.1	19.0	66.2	0.2
40 ~ 49세	100.0	57.4	11.0	11.1	1.8	33.5	42.3	0.3
50 ~ 59세	100.0	74.4	19.2	14.2	3.3	37.8	25.0	0.6
60세 이상	100.0	79.5	25.8	16.0	3.6	34.2	18.7	1.8

자료 : 통계청(2012). 사회조사.

주 : 1) 부모 생존가구수.

2)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임.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단위: %)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가족 중 부모 부양자					자식중 능력 있는 자
							소계 <sup>1)</sup>	장남 (맏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든 자녀	
2008년 <sup>2)</sup>	100.0	11.9	40.7	43.6	3.8	0.0	100.0	17.3	6.7	0.9	58.6	16.4
2010년 <sup>2)</sup>	100.0	12.7	36.0	47.4	3.9	0.0	100.0	13.8	7.7	1.8	62.4	14.3
<b>2012년</b>	<b>100.0</b>	<b>13.9</b>	<b>33.2</b>	<b>48.7</b>	<b>4.2</b>	<b>0.0</b>	<b>100.0</b>	<b>7.0</b>	<b>3.9</b>	<b>0.8</b>	<b>74.5</b>	<b>13.9</b>
<b>성 별</b>												
남자	100.0	13.5	35.3	47.1	4.0	0.0	100.0	8.2	5.2	0.4	72.1	14.1
여자	100.0	14.2	31.2	50.2	4.4	0.0	100.0	5.7	2.7	1.2	76.8	13.6
<b>세대구분</b>												
1세대가구	100.0	20.2	32.9	43.0	3.8	0.0	100.0	9.6	4.2	0.5	70.3	15.3
2세대가구	100.0	11.9	32.0	52.1	3.9	0.0	100.0	5.4	3.7	0.9	76.8	13.2
3세대이상	100.0	10.1	37.4	47.7	4.7	0.1	100.0	10.2	4.9	1.0	70.8	13.1

자료 : 통계청(2012). 사회조사.

주 : 1) 2012년도는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 가족 내에서 조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sup>3</sup>

- 농경사회와 산업화 사회에서는 “할머니의 손이 약손”이었으며, 농사와 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이 존중되었으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에서 최상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조부모들은 절대 권위를 지닌 지혜의 원천이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부모들은 손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감과 젊음과 정열을 느끼기도 하며, 새로운 정서적 역할과 성취감을 맛보기도 함
- 그러나 자녀들과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과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화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기도 함
- 이혼이나 부모의 가출 등의 원인으로 서울시에만 해도 2000년 5224가구, 2005년 7207가구, 2010년은 7537가구 등 조부모(한조부모)와 미혼손자녀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조손가족에서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돌보면서 양육부담과 신체적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경험함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부모역할을 해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도 증가

- 우리나라 부모들은 2006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0%는 대학졸업까지, 20.4%는 혼인 때까지를 부모의 책임한계로 인식하여, 다른 나라 부모들과는 달리 매우 긴 기간 동안 경제적 정서적 양육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 같은 조사에서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을 제외하고도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됨
- 또한 2012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김승권 외, 2013)<sup>4</sup>에 의하면 20-44세 미혼자녀의 경우 남성은 48.9%, 여성은 51.1%가 부모와 동거하며, 비취업인 경우는 비율이 더욱 높아 남녀 각각 72.4%, 74.1%의 높은 동거율을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 취업한 경우 동거율도 62.6% 임

<sup>3</sup> Neugarten과 Weinstein(1964)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공식적 유형(손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양육방식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조부모 역할만 수행하는 유형), 기쁨추구유형(여가시간에 손자녀와 놀아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 유형), 대리부모 유형(부모를 대신하여 유아와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유형), 지혜원천 유형(가족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며, 젊은 세대의 복종을 요구하고 가족 내에서 지혜의 원천인 유형), 원거리 유형(공식적인 가족모임 등 가족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유형)의 5가지로 분류함.

<sup>4</sup> 김승권 외(2013), 『2012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88.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졸업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생각해보지 않음/모르겠음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 통합 발표, 보도자료 (p. 7)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의 연장

-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소득금액도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금액보다 2.8배 많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에 있어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큰 수혜액을 받으며, 또한 2007년과 2011년간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의 경우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최근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조사한 통계<sup>5</sup>에 의하면, 결혼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부모가 모두 부담했다'가 43.2%를 차지해 결혼에서의 부모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 연구<sup>6</sup>에 의하면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한다는 노인은 약 30%이며, 나머지는 모두 경제나 건강의 어려움(경제적 능력부족, 20.4%; 따로 살 집이 없어서, 4.7%; 건강문제, 7.4%) 때문이거나, 자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사/양육의 도움을 제공, 20.4%;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제공, 9.0%) 같이 사는 것으로 부모를 부양한다기 보다는 도리어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2007-2011 국세청 상속세 신고 현황 기준 >

납세지별(1)	상속세종류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피상속인수(명)	3,151	3,703	3,771	4,083	4,316
	상속재산가액 (백만원)	7,203,296	8,323,513	8,254,263	8,709,688	9,244,612

자료 : 국세통계.

<sup>5</sup> 정경희 외,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02.) 에서 발췌 요약.

<sup>6</sup> 영남일보, "신혼부부 넷 중 셋 결혼비용 부모가 부담", (2014. 02.14.) 에서 발췌 요약.

□ 시사점

- 가족의 노부모 및 조부모의 역할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족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이 중요
  -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은 중요한 관계망 및 지원망이므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이 중요
    - 노부모의 특성 중 자녀에 대한 밀착과 의존성은 노인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부모의 의존성과 비지지적 행동은 자녀들의 노부모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부모-성인자녀간의 “높은 상호지원형”의 노인들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에서는 혼자사는 노인과 자녀없이 다른 사람과 사는 노인이 부부만 사는 노인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음
  -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의 자율성과 책임감 향상이 노후준비기 시작
    -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이미 다가온 고령화를 대비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여, 노인세대와 젊은세대가 함께 중요한 정서적, 도구적, 여가적 지원망으로서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연금준비보다도 중요한 일임
    - 세대간의 친밀한 교류, 즉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 손자녀와의 접촉이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부모-조부모 관계는 손자녀-조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상명대학교 교수 정현숙 (2287-5215, hschung@smu.ac.kr)

## □ 세심록(洗心錄)

### ○ 불편함이 정신을 깨어 있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편안하기를 원한다. 인류의 역사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오늘의 편안함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로 평가받는 주나라의 주공(周公)은 특히 군자(지도자, 리더)에게는 편안함보다 불편함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군자는 무일(無逸, 편안하지 않음)에 처해야 한다. 먼저 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취해야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건대 그 부모는 힘써 일하고 농사짓건만 그 자식들은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편안함을 취하고 함부로 지껄이며 방탕무례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업신여겨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불편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주공의 '무일(無逸) 사상'은 중국 정치사상의 저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당 간부, 정부 관료들이 농촌이나 공장에 찾아가 노동을 경험하거나 군 간부들이 병사들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등의 체험을 통해 안일함을 타파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효과를 보기도 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다. CEO가 생산 현장과 영업 전선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수고로움을 피부로 느끼며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면 그 기업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孔子)는 "나도 많이 늙었구나, 이토록 오랫동안 꿈에서 주공을 뵈지 못하다니!"라고 탄식할 정도로 주공을 숭배하였다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루쉰(魯迅)(1881-1936) : 중국의 문학가·사상가

## □ 북리뷰

- **제목 : 부품사회<sup>7</sup>**

- **저자 : 피터 카펠리**

· 피터 카펠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와튼스쿨 인적자원센터에서 소장을 맡고 있음

### ○ 주요 내용

- **‘구인과 구직이 서로 짝을 찾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제시**
  - 미국은 4-5년간의 침체를 겪어 왔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음
  -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딱 맞는 부품이 필요하지만,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빈자리에 직원을 고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고용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수요자인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업무능력 부족, 높은 급여 요구 등이 채용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진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 구직난 순위와 직무의 기술난이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의 업무 기술 부족이 채용난의 핵심이라고 타하는 고용주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함
  - 또한 고용주들은 지원자의 경험 부족을 원인으로 삼으면서 학교를 갓 졸업한 지원자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채용할 마음이 없음
- **공급자인 지원자(대졸자 등)들이 실무능력이나 학업성취도가 부족하다는 것도 채용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 고용주들은 학생들이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실무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고용주들의 불만은 기술 혹은 학문적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관념, 일정관리, 동기부여 부족 등 자기관리 능력과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이 상위 순위였음
- **직원에 대한 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하는 풍토 확산 필요성 대두**
  -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수준과 지원자들이 보유한 기술사이의 격차는 결국 현재 또는 미래 직원을 위한 사내 교육에 고용주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더불어, 학교와 작업 현장을 하나로 묶는 협동 프로그램도 모두에게 효과 만점의 결과를 가져다 줌

<sup>7</sup> 피터 카펠리 지음, 김인수 옮김, “부품사회(Why Good People Can't Get Jobs)”, 레인메이커, 2013.11.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